

농장에서 길을 찾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재학생 7명이 농촌근대화를 목표로 1966년 결성한 성원은 오랜 역사 속에서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성을 갖게 되면서 농업회사법인 성원을 설립하여 농업복지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자립과 건강증진 등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농장의 설립 배경이 궁금합니다.

2013년에 농업회사법인 성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 충청북도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성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지역공동체로서 서로 돕고 건강한 농촌 생활을 만들기 위한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농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요?

농업회사법인 성원을 세우면서 충북 보은군 수한면 5번지 일대 농지 9,000여 평을 구입하여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에는 농지 3,000평에 보은군의 토산 농작물인 보은대추를 심어 우리 농장의 소득 작물로 육성해가고 있고, 옥수수와 호박 등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으로 보은대추를 생산하여 2020년도에는 대추 친환경인증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농업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회적 농업은 사단법인 성원의 고유 목적사업 방향과 일치합니다. 사단법인 성원의 정관과 목적사업을 구상하면서 현재의 사회적 농업과 거의 유사한 활동을 생각하였으니까요.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면 제가 대학 재학시절 가졌던 이상과 그동안의 농업복지에 대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소재지 | 농업회사법인 성원_ 충북 보은군 수한면 산자길 9-22(대표: 김진영) 사회적 농장 지장: 2018년



성원농장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세요.

성원농장은 발달장애 청년들이 농사 소득으로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농업 교육을 합니다. 장래에는 그들을 우리 농장에 고용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 농장에서 장애아 가족이나 성인 장애인들과 어울려 농사를 지음으로써 농장이라는 안전한 터전에서 즐거운 농촌 생활과 더불어 돌봄을 실천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보은군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가입하여 함께 지역복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정신장애 인들에 대한 사회적 농업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작물 협회에도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보은군농업기술센터와 보은군산림조합에서 매년 실시하는 1년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여러 분야 사람들과 연대하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장애 가족이나 성인 장애인들과 어울려 농사를 지음으로써 농장이라는 안전한 터전에서 즐거운 농촌 생활과 더불어 돌봄을 실천하게 됩니다.

 I have a dream

발달장애 청년들과 거의 3년 동안 농사일을 함께해 나가며 그들을 성원의 가족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전화해 그들의 생활이나 근황도 물어보는 등 친밀하게 지내고 있지요. 발달장애 청년들의 숙소를 우리 성원 내에 만들어 그들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성원의 농사일을 하며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농작업 후 휴식할 수 있는 쉼터

농장에 거주 시설을 확보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갈 거예요.



농장 수익 안정화

대추, 옥수수뿐만 아니라 식물재배와 양계 사육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농장의 소득 안정을 이뤄가요.

우리 농장 키워드

든든한 장애인 일자리



발달장애 청년들이 농장에서 배운 농사 경험으로 농장으로 취업해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요.

촘촘한 네트워크



지역 내 농업 베테랑 농업인을 강사로 고용해 농업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관들과도 연계하여 농장의 네트워크를 넓혀요.